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30대 초반의 성인초기 남녀(남: 287명, 여: 325명)를 대상으로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가지 성인초기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가 측정되었고, 양자의 차이에 기초한 피리크기가 산출되었다. 행복은 행복척도와 함께 생활만족척도와 자기존중감척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남녀 모두 발달과업을 성취한 비율이 성취하지 못한 비율보다 더 높았고 7개 과업 중 여성들은 4개의 과업에서 그리고 남성들은 1개의 과업에서 더 높은 성취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중요도 지각에서는 남성들이 2개의 과업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1개의 과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성취수준과 피리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에 대해 7개 발달과업 모두에서 성취수준과 피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으로써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피리크기 모두 행복을 예언하는 효과적인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남녀 모두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발달과업, 성인초기,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

발달과업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에 각 개인이 성취해야만 하는 특정한 활동이나 목표로서 Havighurst (1952)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Havighurst의 기본 가정은 인간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는 성취해야할 특정한 과업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는 발달과업의 성취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이후 단계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그것의 실패는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하며 이후 단계에서의 성취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는 발달적 성숙과 적응의 유용한 지표라는 것이다. 그는 전생애를 영아기와 아동초기, 청년기, 성인초기, 성인중기 그리고 노년기의 6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영아기와 아동초기의 음식물을 섭취하기, 걷기, 말하기의 학습과 같은 단순하고 필수적인 발달과업에서 시작하여 변화하는 신체적 힘과 건강 그리고 임박한 죽음에 적응하는 노년기의 발달과업까지 각 단계의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전생애 동안의 발달에서 특히 청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이동은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변화를 신호하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므로, 이 시기 특유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찍이 Havighurst(1952)는 성인초기의 발달과업을 ① 배우자를 선택한다, ②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③ 가정을 꾸민다, ④ 자녀를 양육한다, ⑤ 가정을 관리한다, ⑥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⑦ 시민의 의무를 완수한다, ⑧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는 8가지 과업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발달과업은 개인의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적 기대 사이의 함수이기 때문에(Heckhausen, 1999) 발달과업의 구체적 내용과 성취시기는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avighurst(1982)도 그가 제안한 발달과업들은 서구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과업일 뿐 산업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분명 상이한 발달과업들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더욱이 Havighurst가 발달과업을 제안한 1950년대 이후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인구의 평균수명이 증가하였고, 성차별의 감소로 여성들의 취업이 보편화되었으며 교육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및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성인기에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성인초기의 발달과업들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 예로서 Erikson(1968)은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친밀성 탐색이라고 주장하였고 Shiner와 Masten(2002)은 청년후기와 성인초기 동안 일과 교육, 사랑, 그리고 친구사귀와 관련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Schulenberg와 Bryant 및 O'Malley(2004)는 교육과 일, 경제적 자율성, 낭만적 몰입, 또래몰입, 약물남용회피, 그리고 시민의식을 성인초기의 특징적 발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와함께 18세부터 25세까지의 시기를 청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출현하는 성인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한 Arnett(2000)은 경제적 독립이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Youniss와 Yates(1997)는 성취와 유친, 정체감 및 시민의식이 이 시기 동안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18세부터 39세까지의 한국인 2,603명(남: 1,255명, 여: 1,348명)을 횡단적으로 연구한 장휘숙(2008)은 Havighurst가 제안한 성인초기 발달과업 중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를 제외한, '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가정을 꾸민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의 6개의 과업과 Havighurst의 '시민의 의무를 완수한다'와 유사한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7가지 발달과업을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연구자들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성인초기 발달과업이 존재하고 문화에 따른 변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명 젊은이들의 성인역할 시작은 지연되고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각 발달단계를 위한 규범적 기대는 존재하므로(Arnett, 2003; Galambos, Turner, & Tilton-Weaver, 2005) 발달과업의 성취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Havighurst(1952)의 주장대로 발달과업의 성취여부가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은 물론 정신건강이나 정신병리를 예언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다. 일찍

이 Kurz와 Wolk(Schneider, 1980)는 7가지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와 생활만족 사이에 .52의 상관을 보고하였고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Schulenberg와 Bryant 및 O'Mally (2004)는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에서 수행된 2개의 종단연구에서도(Brunstein, Schultheiss, & Maier, 1999; Piquart, Silbereisen, & Wiesner, 2004) 청년기의 발달과업 성취와 이후의 심리적 안녕간에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고, 미국에서 수행된 Davis와 Vander Stoep(1997)의 연구에서는 발달과업의 실패는 낮은 자기존중감과 연합되어 있었다. 또한 자기존중감과 정신병적 증후를 행복의 지표로 사용한 Seiffge-Krenke와 Gelhaar (2007)의 연구에서도 발달과업의 성취는 동일한 발달단계에서는 물론 이후 단계에서의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이루고 정신병적 증후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단계에서의 발달과업의 성취는 현재의 단계는 물론 이후 단계에서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Havighurst(1982)나 Seiffge-Krenke와 Gelhaar(2007) 같은 연구자들은 발달과업의 성취는 이후 단계보다 현 단계에서의 행복과 더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뿐 아니라 개인이 발달과업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그 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한다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그 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과는 행복의 지각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것은 곧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발달과업에 부여하는 중요도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괴리크기의 문제로서 괴리크기가 큰 사람과 괴리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행복의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괴리크기와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그 예로서 Seiffge-Krenke(2000)나 Pope와 McHale 및 Craighead(1988)같은 연구자들은 소망된 발달상태와 성취된 발달상태의 불일치가 발달적 진보를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하므로 불일치가 클 때 자기존중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조적으로 McIntosh와 Martin(1992)는 사회문화적 기대가 개인적 자원을 초과하고 발달적 목표가 달성불가능할 때 낮은 자기존중감과 불만족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여 개인이 특정한 발달과업의 성취를 중요시하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울 때 자기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30대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가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를 측정하고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행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의 차이에 해당하는 괴리크기는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물론 이 연구는 횡단연구이므로 현재의 행복상태만 측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발달과업의 성취수준만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성취수준과 괴리크기 모두 행복과 관계가 있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경험하는 행복은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으로도 측정될 수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생활만족(Mroczek & Kolarz, 1998; Westerhof, Dittman-Kohli & Thissen, 2001)과 자기존중감(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Byrne, 2000; Seiffge-Krenke & Gelhaar, 2007)을 행복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두가지 검사를 행복척도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생활만족과 자기존중감이 행복의 타당한 지표인지도 확인하려고 한다. 더욱이 청년기와 성인초기 모두에서 여성들의 발달과업 성취수준이 남성들보다 더 높다는 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으므로(장휘숙, 2008; Heckhausen, 1999; Seiffge-Krenke, 2000; Seiffge-Krenke & Gelhaar, 2007), 한국의 30대 성인 남녀간에도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에서 성차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

D시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성인초기 남녀가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612명이었다. 그 중 남성은 287명, 여성은 325명이었고, 평균연령은 남성 33.92($SD=2.866$)세 그리고 여성 34.34($SD=2.777$)세였다. 남성의 68%와 여성의 81.8%가 결혼하고 남성의 93.7%와 여성의 56.8%가 취업한 상태여서, 통계청(2008)에서 발표한 한국 30대 남녀의 결혼비율(남: 67.6%, 여: 82.5%) 및 취업비율(남: 93.3%, 여: 56.5%)과 매우 유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9월초부터 약 20일간 이루어졌으며, 개별적 접촉을 통해 수집되었다.

측정도구

1) 발달과업 질문지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Seiffge-Krenke와 Gelhaar(2007)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1점),

‘막 시작했다’(2점), 그리고 ‘이미 성취했다’(3점)로 구성된 3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발달과업을 중요시하는 정도도 성취수준에 대한 질문과 동일하게 각 발달과업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1점), ‘약간 중요하다’(2점)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3점)의 3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에서 높은 점수는 발달과업을 이미 성취했거나 매우 중요시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행복척도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척도가 사용되었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4개의 문항(문항 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한 개의 역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원래의 척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행복하다(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문항수에도 불구하고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783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3) 생활만족척도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개의 문항(문항 예: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더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857이었다.

4) 자기존중감 검사

Rosenberg(1979)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검사는 10개의 문항(문항 예: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 로 계산한 이 검사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802였다.

결 과

1.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

1)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30대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7개 발달과업의

성취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고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7개의 발달과업에 대한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빈도와 백분율 및 χ^2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1에 제시된 바와같이, 7가지의 모든 발달과업에서 남녀 모두 발달과업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거나 막 시작한 사람들보다 이미 성취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χ^2 분석 결과, 5가지 발달과업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그 중에서 ‘직업생활을 시작한다’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성취비율을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4개의 발달과업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가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성취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1. 7개의 발달과업에 대한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 빈도와 백분율(괄호안) 및 χ^2 분석결과

발달과업	성별	아직 시작 못함	막 시작함	이미 성취함	χ^2 분석결과
1. 배우자를 선택한다.	남	86(30.1)	27(9.4)	173(60.5)	$\chi^2(2)=15.454$ ***
	여	60(18.5)	20(6.2)	244(75.3)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남	109(38.4)	75(26.4)	100(35.2)	$\chi^2(2)=5.119$
	여	105(33.4)	70(22.3)	139(44.3)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남	99(34.6)	20(7.0)	167(58.4)	$\chi^2(2)=22.958$ ***
	여	57(17.6)	30(9.3)	236(73.1)	
4. 자녀를 양육한다.	남	108(38.0)	54(19.0)	122(43.0)	$\chi^2(2)=5.573$
	여	96(29.8)	59(18.3)	167(51.9)	
5. 가정을 관리한다.	남	105(37.5)	61(21.8)	114(40.7)	$\chi^2(2)=14.013$ ***
	여	77(24.1)	72(22.5)	171(53.4)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남	39(13.9)	64(22.8)	178(63.3)	$\chi^2(2)=20.201$ ***
	여	92(29.0)	64(20.2)	161(50.8)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남	35(12.5)	79(28.2)	166(59.3)	$\chi^2(2)=8.857$ *
	여	46(14.7)	56(17.9)	210(67.3)	

* $p<.05$, ** $p<.01$, *** $p<.001$ 이하 동일함

2) 중요도 지각

7개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수준을 확인하고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발달과업 각각에 대한 중요도 지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고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같이, 대부분의 발달과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70% 미만이었으며,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58.4%에 지나지 않았다.

χ^2 분석 결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고, 그 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와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괴리크기와 행복, 생활 만족 및 자기존중감의 관계

먼저 각 개인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중요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7개 발달과업 각각에 대하여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에 1점, ‘막 시작했다’에 2점, 그리고 ‘이미 성취했다’에 3점을 부여하였고, 중요도 지각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보통으로 중요하다’ 2점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에 3점을 부여하였다. 7개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점수와 중요도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성취수준 상하집단과 중요도 수준 상하집단이 구분되었다.

이와같이 구분된 발달과업 성취 상하집단과 중요도 지각 상하집단을 대상으로 괴리크기 집단이 산출되었다. 즉 발달과업 성취 상집단과 중요도 지각 상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발달과업 성취 하집단과 중요도 지각 하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괴리크기 하집단으로 그리고 발달과업 성취 상집단과 중요도 지각 하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발달

표 2. 7개의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의 빈도와 백분율(괄호안) 및 χ^2 분석결과

발달과업	성별	중요하지 않다	보통으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χ^2 분석결과
1. 배우자를 선택한다.	남	9(3.2)	24(8.5)	250(88.3)	$\chi^2(2)=.280$
	여	12(3.7)	30(9.3)	280(87.0)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남	8(2.8)	58(20.5)	217(76.7)	$\chi^2(2)=1.375$
	여	11(3.4)	54(16.9)	254(78.2)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남	6(2.1)	33(11.7)	244(86.2)	$\chi^2(2)=9.383^{**}$
	여	20(6.2)	52(16.1)	250(77.6)	
4. 자녀를 양육한다.	남	6(2.1)	36(12.7)	241(85.2)	$\chi^2(2)=.407$
	여	9(2.8)	44(13.6)	270(83.6)	
5. 가정을 관리한다.	남	3(1.1)	37(13.1)	243(85.9)	$\chi^2(2)=.707$
	여	5(1.5)	48(14.9)	270(83.6)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남	5(1.8)	61(21.5)	218(76.8)	$\chi^2(2)=23.430^{***}$
	여	7(2.2)	127(39.4)	188(58.4)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남	8(2.8)	101(35.4)	176(61.8)	$\chi^2(2)=7.040^*$
	여	2(0.6)	98(30.2)	225(69.2)	

과업 성취 하집단과 중요도 지각 상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괴리크기 상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시 말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은 괴리크기 하집단으로, 그리고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집단은 괴리크기 상집단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에서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발달과업 성취 상집단, 하집단)×2(괴리크기 상집단, 하집단)의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미 χ^2 분석에서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에서 성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은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의 총합점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1)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에서의 차이

표 3. 남녀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의 총합점수와 표준편차

성취수준	괴리크기	남				여			
		N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	N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
상	상	32	9.66(2.202)	12.76(2.872)	27.76(4.818)	56	9.91(3.049)	14.38(4.930)	28.80(5.988)
	하	116	11.38(2.163)	16.40(4.288)	32.15(4.922)	117	11.13(2.304)	15.33(4.685)	30.95(4.683)
	전체	148	11.04(2.271)	15.67(4.292)	31.28(5.194)	173	10.73(2.629)	15.02(4.781)	30.24(5.232)
하	상	61	10.61(2.483)	13.33(4.759)	31.07(4.802)	61	10.01(3.153)	13.85(5.028)	29.98(5.525)
	하	78	9.30(2.821)	12.27(4.093)	28.55(5.296)	91	9.18(2.826)	12.26(3.919)	26.87(5.569)
	전체	139	9.84(2.754)	12.71(4.397)	29.59(5.229)	152	9.51(2.976)	12.88(4.439)	28.09(5.738)
전체	상	93	10.28(2.420)	13.13(4.196)	29.93(5.034)	117	9.96(3.086)	14.12(4.963)	29.37(5.774)
	하	194	10.55(2.647)	14.75(4.664)	30.71(5.363)	208	10.32(2.706)	14.05(4.634)	29.25(5.444)
	전체	287	10.47(2.579)	14.26(4.580)	30.47(5.269)	325	10.19(2.848)	14.08(4.746)	29.29(5.556)

표 4.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남	성취수준	18.164	1	18.164	3.075	.011
	괴리크기	2.321	1	2.321	.393	.001
	성취수준 * 괴리크기	128.537	1	128.537	21.759***	.071
	오차	1671.776	283	5.907		
	전체	1903.100	286			
여	성취수준	63.419	1	63.419	8.394**	.025
	괴리크기	2.787	1	2.787	.369	.001
	성취수준 * 괴리크기	78.018	1	78.018	10.326***	.031
	오차	2425.254	321	7.555		
	전체	2629.397	324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남성에서는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F(1, 283)=21.759, p<.001$)만 유의하였고, 여성에서는 성취수준의 주효과($F(1, 321)=8.394, p<.01$)와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F(1, 321)=10.326, p<.001$)가 유의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괴리크기가 작은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나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괴리크기가 큰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48)=3.886, p<.001$). 또한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괴리크기가 큰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괴리크기가 작은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35)=2.822, p<.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리크기가 큰 남성들 중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간에 행복의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t(85)=1.756, p>.05$), 괴리크기가 작은 남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98)=5.914, p<.0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80)=3.014, p<.01$).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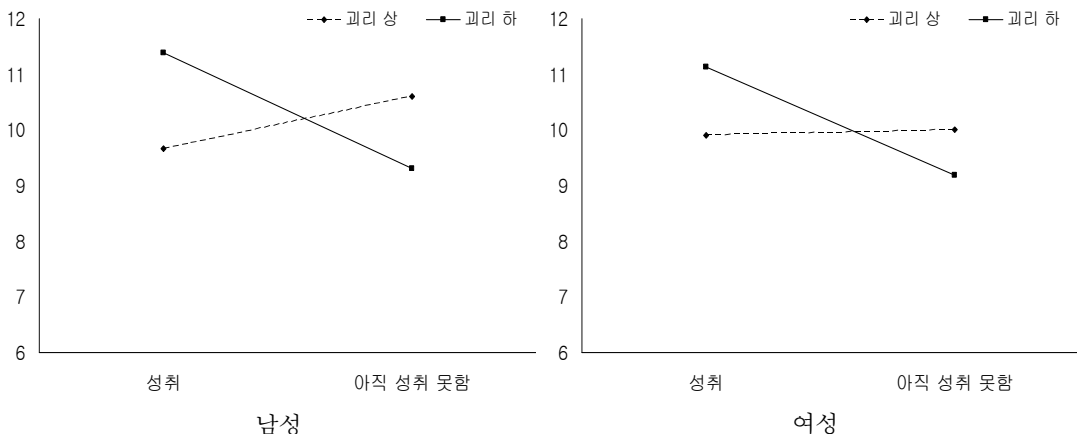


그림 1. 남녀의 행복에서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과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 간에는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80)=1.645, p>.05$).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리크기가 큰 여성들 사이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간에는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t(114)=.176, p>.05$) 괴리크기가 작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7)=5.498, p<.0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생활만족에서의 차이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생활만족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남성들에서는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F(1, 283)=9.952, p<.01$)와 괴리크기의 주효과($F(1, 283)=5.212, p<.05$) 및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효과($F(1, 283)=17.302, p<.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F(1, 321)=11.249, p<.001$)와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F(1, 321)=5.631, p<.05$)만 유의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남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지만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표 5. 남여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생활만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남	성취수준	176.567	1	176.567	9.952**	.034
	괴리크기	92.464	1	92.464	5.212*	.018
	성취수준 * 괴리크기	306.953	1	306.953	17.302***	.058
	오차	5020.783	283	17.741		
	전체	6001.401	286			
여	성취수준	238.769	1	238.769	11.249***	.034
	괴리크기	7.556	1	7.556	.356	.001
	성취수준 * 괴리크기	119.517	1	119.517	5.631*	.017
	오차	6813.181	321	21.225		
	전체	7300.757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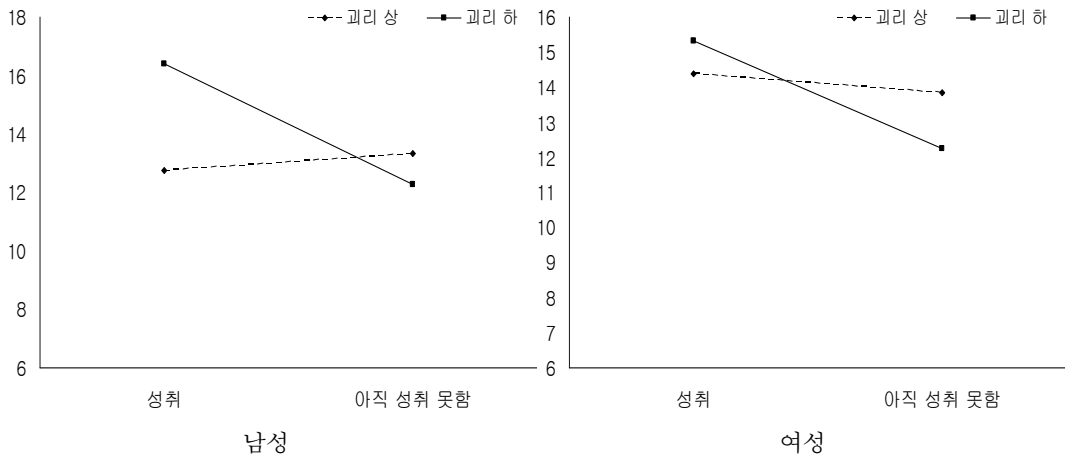


그림 2. 남녀의 생활만족에 대한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48)=4.394, p<.001$). 그러나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은 생활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135)=1.393, p>.05$).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리 크기가 큰 남성들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간에 생활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85)=.596, p>.05$), 괴리크기가 작은 남성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8)=6.785, p<.0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생

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과업 성취 수준의 주효과와 괴리크기의 주효과 역시 유의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한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남성들 보다 그리고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이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 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과 발달과업은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생활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80)=1.266, p>.05$). 그러나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41)=2.120, p<.05$).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

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리크기가 큰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14)=.569, p>.05$) 괴리크기가 작은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였다($t(207)=4.987, p<.0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

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자기존중감에서의 차이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자기존중감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표 6 남여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자기존중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남	성취수준	1.296	1	1.296	.052	.000
	괴리크기	48.842	1	48.842	1.956	.007
	성취수준 * 괴리크기	666.200	1	666.200	26.686***	.086
	오차	7064.878	283	24.964		
	전체	7941.603	286			
여	성취수준	154.601	1	154.601	5.444*	.017
	괴리크기	16.920	1	16.920	.596	.002
	성취수준 * 괴리크기	510.217	1	510.217	17.966***	.053
	오차	9115.896	321	28.398		
	전체	10001.643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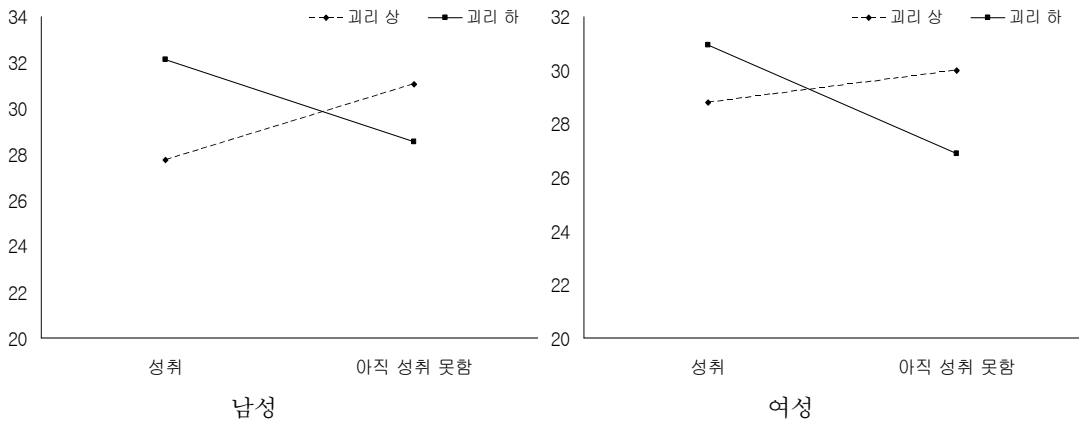


그림 3. 남여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실시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성들에게서는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만 유의하였고($F(1, 283)=26.686, p<.001$),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F(1, 321)=5.444, p<.05$)와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F(1, 321)=17.966, p<.001$)가 유의하였다.

그림 3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남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t(148)=4.388, p<.001$). 또한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35)=2.852, p<.01$). 다시 말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리크기가 큰 남성들 중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한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고($t(85)=3.046, p<.01$), 괴리크기가 작은 남성들 중에서는 발달과

업을 성취한 남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t(198)=4.926, p<.0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고,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80)=2.650, p<.01$). 또한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t(141)=3.268, p<.001$). 다시 말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리크기가 큰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과 성취하지 않은 여성들간에 자기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114)=1.103$,

$p > .05$), 괴리크기가 작은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t(207)=5.731, p < .001$). 다시 말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그리고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과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는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과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함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나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

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는 물론 발달과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각하는지도 행복의 지각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30대 초반의 성인 남녀 612명(남: 287명, 여: 325명)을 대상으로 발달과업 질문지를 사용하여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가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가 측정되었고, 양자의 차이에 기초한 괴리크기가 산출되었다. 또한 행복은 행복척도와 함께 행복의 지표로 알려진 생활만족과 자기존중감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7개의 발달과업 모두에서 발달과업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막 시작한 사람보다 더 높았고, 7개 과업 중 5개 과업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가정을 관리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성취비율을 나타내었다. 7개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보통으로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성차가 나타난 3개의 발달과업 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와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가지 종속변인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성인초기의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나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과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발달과업을 성취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는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며,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과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 모두 행복을 예언하는 효과적인 변인임을 의미하였다.

Havighurst(1952)에서 시작하여 이 분야의 많은

후속 연구자들(Brustein, Schultheiss & Maier, 1999; Pinqart, Silbereisen, & Wiesner, 2004; Schulenberg, Bryant & O'Mally, 2004; Seiffge-Krenke & Gelhaar, 2007)은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로서 개인의 행복을 예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함께 괴리크기 또한 행복을 예언하는 효과적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괴리크기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의 차이에 해당하므로 이 연구는 발달과업의 성취여부 뿐 아니라 발달과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지에 따라 개인의 행복이나 생활만족 혹은 자기존중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단순히 괴리크기가 클 때 자기존중감이 증가한다는 Seiffge-Krenke(2000) 혹은 Pope와 McHale 및 Craighead (1988)의 연구결과나 발달과업을 중요시하지만 성취불가능할 때 자기존중감이 저하된다는 McIntosh와 Martin(199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발달과업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지 않으면 행복을 경험하기 어렵고,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행복은 그 사회의 규범적 기대인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난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생활만족과 자기존중감이 행복의 타당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행연구들(Baumeister 등, 2003; Mroczek & Kolarz, 1998; Seiffge-Krenke & Gelhaar, 2007; Westerhof 등, 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생활만족은 개인 자신이 선택한 범주에 따른 생활의 질에 대한 개인의 전체적 평가로서(Shin & Johnson,

1978) 자주 심리적 안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존중감은 인간 행복의 가장 필수적 구성요인 중의 하나임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행복의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Seiffge-Krenke와 Gelhaar(2007)같은 연구자는 자기존중감과 함께 심리적 장애의 부재를 행복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행복의 부적 측면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녀간의 발달과업 성취에서도 선행연구들(장휘숙, 2008; Heckhausen, 1999; Seiffge-Krenke & Gelhaar, 2007)과 일치되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성들의 이른 신체적 성숙과 남성들보다 더 낮은 평균 초혼연령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발달과업을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각한 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와 ‘직업생활을 시작한다’는 과업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중요도 지각점수를 나타내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도덕지향적이기는 하지만 결혼과 직업생활을 남성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한다’와 ‘가정을 관리한다’는 과업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여성들이 여성 역할 전체를 남성들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30대 초반은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이므로 직업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기인한 과부화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편의표집 방식에 의해 표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들의 결혼비율과 취업비율이 통계청(2008)에서 제시한

전체 인구의 결혼 및 취업비율과 유사하여, 연구결과를 한국의 30대 성인 남녀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자기보고방식에 의해 수집되었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기인한 편향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교사나 부모 혹은 배우자와 같은 다른 정보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자기보고 자료의 보충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발달과업은 개인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발달과업의 성취수준만으로 개인의 행복을 예측하기보다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함께 발달과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만 더 타당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장휘숙(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4), 109-126.
- 통계청(2008). 인구·가구 및 고용·노동·임금 통계, <http://www.kosis.kr/>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03).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emerging adults in American ethnic groups. In J. J. Arnett, & N. L. Galambos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Exploring cultural conception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San Francisco: Jossey-Bass.

- Baumeister, R. F., Campbell, J. D., Krueger, J. I., & Vohs, K. D. (2003). Does high self-esteem cause better performance, interpersonal success, happiness, or healthier lifestyle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4, 1-44.
- Brunstein, J. C., Schultheiss, O. C., & Maier, G. W. (1999). The pursuit of personal goals: A motivational approach to well-being and life adjustment. In J. Brandstätter, & R. M. Lerner (Eds.), *Action and self-development: Theory and research through the life span* (pp. 169-196). Thousand Oaks: Sage.
- Byrne, B. (2000). Relationships between anxiety, fear,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ies in adolescence. *Adolescence*, 35, 201-215.
- Davis, M., & Vander Stoep, A. (1997).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have serious emotional disturbance: Part I. Developmental transi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Administration*, 24, 400-42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lambos, N. L., Turner, P. K., & Tilton-Weaver, L. C. (2005). Chronological and subjective age in emerging adulthood: The crossover effec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 538-556.
- Havighurst, R. (195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McKay.
- Havighurst, R. J. (1982). The world of work. In B. B. Wolman (Ed.),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eckhausen, J. (1999). *Developmental regulation in adulthood: Age-normative and sociostructural constraints as adaptive challeng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cIntosh, W. D., & Martin, L. L. (1992). The cybernetics of happiness: The relation of goal attainment, rumination, and affect.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pp. 222-246). Newbury Park: Sage.
- Mroczek, D. K., & Kolarz, C. M. (1998). The effect of age 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333-1349.
- Pinquart, M., Silbereisen, R. K., & Wiesner, M. (2004). Changes in discrepancies between desired and present states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A 4-process mode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467-477.
- Pope, A. W., McHale, S. M., & Craighead, W. E. (1988).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Elmsford: Pergamon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 York: Basic Books.
- Schneider, H. D. (1980). The theory of developmental tasks: A pool for many things or more. *Aktuelle Gerontologie*, 10, 535-542.
- Schulenberg, J. E., Bryant, A. L., & O'Malley, P. M. (2004). Taking hold of some kind of life: How developmental tasks relate to trajectories of well-being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1119-1140.
- Seiffge-Krenke, I. (2000). Are discrepancies between developmental status and aspired goals a sufficient motivation for developmental progression? In J. Heckhausen (Ed.), *Motivational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Developing motivation and motivating development*. Amsterdam: Elsevier.
- Seiffge-Krenke, I., & Gelhaar, T. (2007). Does successful attainment of developmental tasks lead to happiness and success in later developmental tasks?—A test of Havighurst's (1948) theses. *Journal of Adolescence*, 4, 1-20.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hiner, R. L., & Masten, A. S. (2002). Transactional links between personality and adaptat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 580-588.
- Westerhof, G. J., Dittmann-Kohli, F., & Thissen, T. (2001). Beyond life satisfacti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o judgments about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 56: 179-203.
- Youniss, J., & Yates, M. (1997). *Community servic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yout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차 원고 접수: 2009. 01. 09

수정 원고 접수: 2009. 02. 08

최종 게재결정: 2009. 02. 09

The Relationship of Developmental Tasks and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discrepancies and happiness with 612 adults of thirties. For this purpose seven developmental tasks identified by Jang(2008) and Developmental Task Questionnaire were used. Results revealed the proportion of achieved status was higher than that of not achieved status in all tasks and women's proportion of achieved status was higher than men's proportion of that. While women had higher subjective importance in one task than men, men had higher subjective importance in two tasks than women. Generally the achiever of developmental tasks were disposed to perceive more importantly developmental tasks. Two-way ANOVA revealed both of achieved status of developmental task and discrepancies were effective variables for predicting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eywords: developmental tasks, early adulthood, happiness